



국제곡물시세 동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최근 미국산 옥수수시세는 C&F 가격 기준으로 톤당 135불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공산 옥수수는 지난 4월 15일부로 중공의 수출창구가 일원화되고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점차 메릿트를 잃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실수요자들에 의해 구매되고 있는 수입가격은 C&F가격기준으로 톤당 132불로 미국산 옥수수가격의 2~3 불을 밑돌고 있는 시세이다. 또한 태국산 옥수수는 6월현재 Grade 1(US No.2에 해당)을 기준으로 6월 인도조건인 경우 방콕항 FOB가격기준으로 톤당 145불까지 호가하고 있고, 9월~10월인 경우는 96불의 낮은 시세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와같이 태국산 옥수수가 인도월 (delivery month)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6월현재 수출가능한 구곡(old crop) 재고물량이 거의 소진된 상태이나, 8~9월에 가면 신곡(new crop) 수확이 이루어지고 우기까지 겹쳐 홍수 출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산 옥수수가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여 오고 있는 주요인은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계생산국들의 풍작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록적인 풍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10일 미농무성(USDA)이 추정 발표한 85/86년도 옥수수생산 예상량은 4억5,640만톤으로 84/85년에 비해 1.4%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같은 증가 예상수치는 금년도 예상 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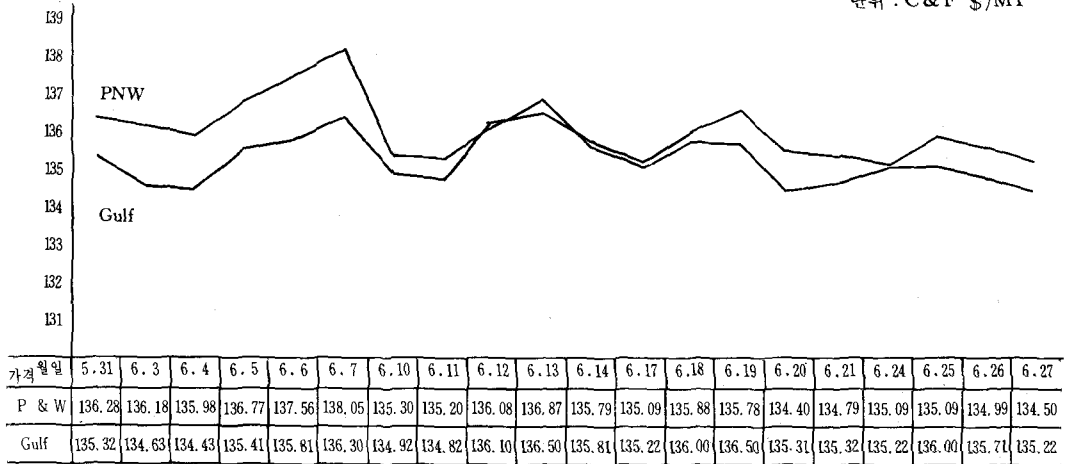
면적과 단위당 수확량을 기초로 하여 추정되는데 앞으로의 기후변동이나 기본변수의 수정등에 의해 다소 차이가 날수 있으나 6월9일 현재 전미국의 주요생산지역 옥수수 식부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서 근래 보기드문 진전상황을 보이고 있다. 미국 콘벨트지역이 식부작업 후 얼마간 주요생산지역(Corn belt)에서 건조 기후가 예상되면서 시카고 곡물시장 (Chicago Board of Trade)의 원 월도시세(deferred price)를 강제로 몰아가기도 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강우로 인해 토양수분함량은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앞으로의 미국산 주요 곡물시세는 미국내 주요생산지역의 기후변동에 따라 가격변화가 예상되며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양호한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 미국산 옥수수시세를 좌우할 수 있는 시세변동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또하나의 요인은 미국의 수출장려책이다. 흔히 Export PIK 또는 Export Bonus Program으로 불리는 이 수출장려책이 발동되게 되면 국제곡물시세가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이 계획은 점차 축소되어가는 미국의 곡물수출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비율의 수출장려금을 미국의 상품 신용공사인 CCC(Comodity Credit Corporation)가 현물로 무상공여해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Export PIK정책이 실시되게 되면 미국산 곡물은 호주 또는 EC와 마찬가지로 수출가

옥수수 가격동향

단위 : C & F \$/MT



격보조를 받게되며, 수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품목별, 지역별 가격차별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일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고려된다면 소맥의 경우 호주, EC 옥수수의 경우 중공, 태국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농무성은 일차적으로 알제리에 대한 소맥수출물량 100만톤에 대해서만 수출보조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은 EC가 현재 알제리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불해가며 불공정 덤핑무역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같은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향후 3년에 걸쳐 21억불에 해당하는 곡물로 무상공여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 EC 지역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 같은 가격수준을 유지해가며 보조를 맞추어 갈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농산물 무역정책의 변화와 미국내 곡물 식부상태의 호전에 힘입어 금후 미국곡물을 중심으로 국제 곡물시세는 안정세를

유지해 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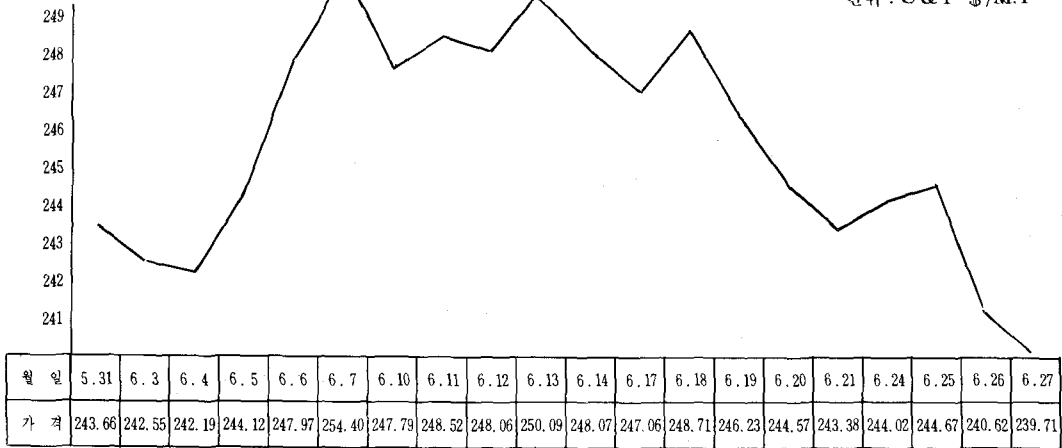
그러나 이로 인한 가격상승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즉 앞으로 미국이 Export PIK 정책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과거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국시장에 진출했던 호주, 중공, 태국 등이 과거와 같이 아주 큰 가격차를 두고 한국시장 등에 곡물을 수출하는데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공이 과거와 같이 20불 가까운 큰 폭의 가격차를 두고 한국시장에 옥수수를 수출한다고할 경우 미국이 EC의 소맥수출에 대해 그러했듯이 중공의 옥수수에 대해서도 미국이 보너스를 지불해가며 경쟁할지 모른다는 압박감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외의 곡물시세는 오히려 강세를 보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미국의 Export PIK정책은 앞으로의 가격전망에 대해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미국산 곡물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공급불이행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시켰던 중공산 옥수수는 일본에 대해서도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 대한

대두가격 동향

단위 : C & F \$/M.T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5월 선적분이 50% 정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6월선적 분도 마찬가지로여서 앞으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예상이다.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륙 수송상태의 미비로 인해 옥수수 집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나, 앞으로 7~9월이면 우기까지 겹치기 때문에 심각한 국면에까지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은 6개 종합상사의 장기공급 계약물량 15만톤, 기타 10만톤을 합쳐 약 25만톤의 월간 계약물량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수요감퇴와 브라질 대두생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 미국산 대두시세는 C&F 가격기준으로 톤당 240불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두박시세 역시 수요 감퇴 등으로 미국, 브라질, 중공 등의 재고량이 충분한 상태이며 가격수준도 미국산이 C&F기준으로 톤당 160불, 중공산이 150불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산지별 대두식부진전 상황을 보면 6월16일 현재 89%의 식부가 완료되어 지난해의 81%에 비해 대단히 양호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내 아이오와, 네부라스카, 사우스 타코타주의 식부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앞

으로 지금과 같은 기후조건이 계속된다면 타주의 식부작업도 바로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기타곡물 가운데 금년도 수수시세는 남반구 수수의 작황부조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호주산, 아르헨티나산이 C&F 가격으로 톤당 120~130불을 나타내고 있다. 사료용소맥은 현재 호주산 소맥이 톤당 C&F 130불, EC산이 135불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인도산 식용소맥도 사료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아직 가격제시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6월20일 식물성 오일첨가 0.5% 기준으로 C&F 63불에 구매계약된 바 있는 태국산 타피오카 하드펠렛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 1:1 특혜제도 (one one Bonus제도)로 인해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1:0.5특혜제도로 변경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과거 1:1 Bonus 제도는 EC이외의 지역, 즉 한국에 타피오카제품 1만톤을 수출할 경우, EC지역에 대한 수출쿼터 1만톤을 늘려주는 제도였으나 앞으로는 1:1이 아닌 1:0.5로 바뀌어 진다는 것이다. 아직은 루머로 확인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타피오카시세는 강세를 보여 C&F 톤당 65불수준을 보이고 있다.*